

다산포럼



전성근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노마스크로 개최되었다. 6월 11일부터 13일 까지 영국에서 개최된 G7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청되었다.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시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언론과 포털 등의 뉴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보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20대 대통령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2022년 6월 1일 수요일이다. 대통령선거일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는 날이고,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모두 국민의 공복을 뽑는 날이다. 공복은 공정한 심부름꾼이다.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가짜 뉴스 시대에 살아남기’ ‘뉴스, 믿어도 될까?’ 등의 제목을 단 책들이 출판되고 있다. 기자와 쓰

정치의 계절, 부끄러운 시간

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기레기 언론을 감시하는 ‘기레기 아카이브’ 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했다. 정치검찰, 정치언론, 정치관료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다. 검찰과 언론 그리고 관료 등이 공정의 책무를 잊고 정치에 개입하기 때문인 듯하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명제가 있다. 정치는 정의롭지 못한 일을 정의롭게 바로잡는 것이다. 분배 정의와 절차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슬픔은 정의롭지 못한 국가수반이 구속되는 역사의 집결에서 정점에 다다른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공공선에 대한 불이해를 기반으로 한 자본권력이 있다.

만사는 인사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말이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다. 인간을 정의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집단지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토론과 논쟁이 없어서는 안 된다. 화합은 하나의 생각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품을 줄 때 완성된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끝나기를!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다. 원제(‘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를 해석하면 ‘능력주의의 폭정: 공동선은 어떻게 되었는가?’ 정도가 될 듯하다. 사회적 상승을 위한 학력주의가 성공의 윤리라는 미국의 공식을 비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선을 위해 나아가길 것을 제안한다. 지금의 결과는 엄하고설친 관계 속에서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1996년 6월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2007년 서해안 원유 유출,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등 20여 년간 수많은 사건과 참사가 있었다. 2017년에는 18대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2018년에는 17대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대한민국이 대형 사건 사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4년제 대학 162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부분이 지방대학이었는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지역 소멸도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청년 인구의 유출은 지역 소멸의 시간을 단축시킨다. 경제적이고 지역적인 양극화 현상은 초저출산과도 연동되어 있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0.918명이다. 아직도 부끄러운 시간이다. 정치가들은 자신의 지향을 밝혀야 한다.

유가철학에서 의리(義理)는 의미(意味)를 뜻하기도 하고 정의(正義)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정의로운 생활을 통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의리라는 개념이다. 공정은 사적인 이익과 욕심을 최소화하고 공동선을 추구 할 때에만 입에 올릴 수 있는 개념이다. 모두들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청춘 특특



김다은
동신대 디지털콘텐츠학과 1학년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프랑스 드라마를 접하게 됐다. 제목은 ‘스캅 프랑스’. 노르웨이의 TV 드라마 ‘스캅’을 원작으로 한 리메이크 버전 중 하나로, 스캅의 프랑스 시리즈이다. 이 드라마는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루고 있다.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나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이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 그 속에서 대화의 흐름은 다양하다. 사람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마다 다른 생각과 가치관이 ‘편견’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편견은 특정 집단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와 평가를 동반한다.

최근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3관왕 안산 선수의 헤어스타일과 말투 등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한 페미니스트 논란 역시 이 같은 편견의 문제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안산의 헤어스타

편견과 혐오의 화살에 맞서는 세상을 위해

일을 지적하며 ‘여대에 숯컷, 페미니스트의 모든 것을 갖겠다’, ‘여대 출신 숯컷은 90% 이상 확률로 페미’ ‘페미 아닌 경우는 극소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헤어스타일 때문에 논란에 휘말린 건 안산 선수뿐만이 아니다. 사적 국가대표인 박희문 선수도 ‘숯컷하면 다 페미니스트’ 등의 댓글 공격을 받았다.

누군가는 여성의 숯컷이 싫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누군가에게는 가족이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것과 같다. 개인이 느끼는 혐오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숯컷이 ‘남성 혐오’일 수 없다. 또한 혐오가 개인이 아닌 집단의 차원이 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없다. ‘숯컷은 페미’ ‘페미는 남성 혐오’라는 일부 집단의 편견이 안산 선수와 박희문 선수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들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다룬 외신들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페미니스트를 원래 뜻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시니컬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AFP 통신은 “안산의 짧은 머리가 그가 페미니스트라는 걸 암시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안산은 일부 한국 남성들의 ‘온라인 학대’(Online abuse) 대상이 됐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자 최고의 기술 강국이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보도했다.

BBC 한국특파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머리 모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이 양성평등을

이루려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더러운 단어가 되어 버렸다”고 썼다.

또 폭스뉴스는 “안산은 자랑스럽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한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성장한 반페미니스트에 의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가끔은 우리 한국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로 보는 외부의 시각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편견과 혐오를 멈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드라마 ‘스캅 프랑스’를 많은 이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다. 드라마는 왕따, 성폭력 피해자, 게이, 흑인 미술家和 같은 소수자나 폭력 피해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류 사회가 정상이나 혹은 상식이나 또는 보편이라고 부르는 기준에 벗어난 이야기들이다.

이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 ‘모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문제는 없다’는 울림을 준다.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에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도 연결된다.

생각의 전환도 필요한 것 같다. 우리는 편견의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나 또는 가족, 친구가 ‘제2의 안산’이 될지도 모른다. 언젠가 편견과 혐오의 화살이 나와 우리를 향할 때, 우리를 위해 기꺼이 맞서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나부터.

기고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 광주여대 양궁부



윤종찬
광주여대 교수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강인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현재 국내에는 우수한 선수가 굉장히 많다.

광주여대 양궁부. 설립됨도 아닌 대학입이 3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하는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 광주여대 안산 선수는 도쿄올림픽에서 혼성전 첫 금메달을 획득한 후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까지 금메달을 따면서 3관왕에 올랐다. 안산의 눈부신 활약으로 한국 여자 양궁은 올림픽 9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한국 양궁은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서울 대회부터 이번까지 모든 금메달을 쓸쓸히했다.

오랜 역사를 갖고 많은 운동부를 육성하는 대학들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그만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광주여대 양궁부는 기보배가 2012 런던올림픽에서 개인·단체전 2관왕에 올랐고, 최미선은 2016 리우올림

픽에서 금메달을 수확했으며, 안산이 도쿄올림픽에서 3관왕에 입상하면서 단일팀으로는 국내 최초의 대기록을 수립했다.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며 한국 양궁의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이처럼 눈부신 성공을 이뤄 낸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명장 김성은 감독의 탁월한 지도 능력과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노력을 들 수 있다. 2000년 갑작스레 창단된 양궁팀은 어려운 여건으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도 선수들과 항상 함께하면서 열심히 훈련에 열중했다.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하고 스카우트하기 위해 많은 시간 훈련 현장을 찾았고, 최적의 장비 상태를 맞추기 위해 직접 손으로 깎고 조이며 장비를 튜닝했다. 이런 노력으로 각종 국제 및 국내 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둘째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 속에서 교감하고 소통하는 마음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로 선수 각자가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운동 수행 성적을 높였다. 운동선수들이 오랜 단체생활에서 서로 간의 이해 충돌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팀이 무너지게 되는데 마음 교육을 통한 배려와 협조 속에 팀이 단합되어 열심히 훈련에 임하면서 훈련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셋째, 선수 각자의 열정적인 노력이다. 운동부를 육성하는 많은 팀이 엄격한 통제와 규칙을 강조하고 장기간의 합숙 훈련에 임하면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선수들은 상대와의 경쟁, 주위의 기대, 메달 획득

에 대한 욕심, 지도자와 선수 간의 갈등 등으로 운동에 싫증을 느끼게 되면서 많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어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

지도자와 선수는 상호 약속으로 훈련장과 학교생활의 분위기를 최대한 자율적이며 대학의 낭만을 경험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훈련할 때는 최대한 집중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훈련에 매진하였다. 지도자와 선수 간의 신뢰가 높기에 훈련 효과는 높게 나타났다.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대표로 현재 실업팀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질 때나 기량 향상을 위해 수시로 학교를 찾게 되는 것은 분위기가 좋은 훈련장을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끝으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다. 대회 기간 동안 광주여대 일부 교직원 이 최소 인원으로 응원전에 참석하였고 나머지 교직원과 학생들은 온라인 응원전을 펼치면서 대학의 전체 구성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안산 선수의 승리를 기원했다.

또한, 공동체에서 나누면서 실천하는 교육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교육철학을 지향하기에 운동부 육성 정책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발휘되면서 광주여대 양궁부는 연속 3회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 선수들 개개인의 피땀 어린 노력과 감독 및 교직원들의 협력이 훌륭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광주여대 양궁부의 끊임없는 연승을 기원한다.

社說

답답한 가슴 확 뚫어 주는 올림픽 영웅들

멈추지 않는 코로나 확산과 찌는 듯한 무더위로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 도쿄올림픽에서의 승전보는 답답한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 준다. 특히 우리 지역 출신 선수들의 활약은 반갑기만 하다. 그 누구보다도 양궁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 대한민국 하계올림픽 사상 첫 3관왕이 된 광주 출신 안산(20·광주여대) 선수를 빼놓을 수 없다.

안산 선수가 하마터면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뻔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지난해 3위까지만 출전할 수 있는 최종평가지에서 4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다시 치른 평가전에서 3위를 탁월이하면서 천재 일우의 기회를 얻었고 그렇게 해서 안산은 올림픽 양궁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었다.

‘도마 공주’ 여서정(19)도 동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스포츠 사상 첫 ‘부녀(父女)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썼다.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한 여서정은 수

원시청 소속이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도마 황제’로 불리는 광주 출신 여흥철(50, 애플란타 올림픽 은메달) 경희대 교수다.

야구에서는 광주 출신 이의리와 바람의 손자 이정후의 활약이 돋보였다. 특히 옛 그제 열린 도미니크 공화국과의 경기에서 19세의 ‘루키’ 이의리는 자신의 첫 국제대회 선발이라는 중압감 속에서도 5이닝 4안타 3실점으로 등판을 마무리했다. 특히 9개의 탈삼진을 뺏아내면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에 화답하듯이 이종범의 아들 이정후는 9회말 1사 2루에서 시원한 동점타를 날려 끝내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밖에 이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폴란드를 꺾고 8강에 진출한 여자탁구 단체전에서 활약한 17세의 신유빈도 ‘국민 여동생’으로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있다. 아무쪼록 우리 태극전에 걸여 한국 스포츠 사상 첫 ‘부녀(父女)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썼다.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한 여서정은 수

음식 주문까지 기계로... 노인들은 어찌하라고

최근 금융·유통 등 산업계는 물론 행정·의료·교통 등 사회 각 분야에 무인화 열풍이 거세다. 기술혁신으로 주문·결제·예약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kiosk)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로 촉발된 비대면 문화 확산과 날로 커지는 인건비 부담은 무인화 시대를 앞당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국내 키오스크 유형과 공급 시설 등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무인 단말기는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도 보편화됐다. 특히 유통업체와 외식업체가 적극적이다. 주문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대기시간을 줄이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외식업체, 패스트푸드점과 커피 전문점들은 매장 내 무인 서비스를 넓혀 가고 있고, 편의점들은 아예 무인점포를 늘리는 추세

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의 경우 지난해부터 현장 창구 발권 업무를 모두 무인 발권기로 대체했다.

이처럼 무인화가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면서 사람 대신 기계가 손님을 맞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들은 그 이유로 ‘소비자 편의성 확대’를 꼽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인 단말기로 식당 주문을 해 본 노인 중 64.2%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사용법이 복잡한 데다 뒷사람 눈치를 봐야 하고, 글씨가 잘 안 보여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들 디지털 소외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인 단말기 개선이 절실하다. 또한 일정 기간 점담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소비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이후를 열어 갈 수 있는 치열한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상대 후보의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소모적 네거티브 공세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내검내 흑’,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내가 하면 흑색 선전이라는 식이다.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진영의 난타전은 ‘명낙대전’으로 불릴 만큼 그 수위가 적정선을 넘어서고 있다.

대선 승리 공식

여기에 후발 주자들은 결선 투표에 진출하기 위해 모든 후보들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이른바 ‘모두 까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코로나 사태를 인내하며 민주당 경선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차기 대선은 민주당에 결코 유리한 구도가 아니다. 오는 11월까지 전 국민 백신 접종률 80%로 집단면역을 만들어 내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델타 변이 확산과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흔들리고 있다. 여권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마스크 대선’ 가능

성마저 거론된다. 여기에 아파트 등 한 번 오른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반면 나라 밖을 보면 마중 간 첨예한 갈등 속에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우주항공 산업, 백신 전쟁 등 첨단 분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생존을 이룰 정책적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 미래 성장 담론보다는 현금 지급성 공약만 내놓으면서 ‘퍼주기’ 논란마저 자초하고 있다.

대선에서의 승리 공식은 단순하다.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미래 희망

을 줄 수 있느냐가 정권의 향배를 결정한다. 민생 경제가 정권 창출의 필요조건인 셈이다. 여기에 서민과 중산층의 애환을 함께하며 시대정신의 본질을 꿰뚫는 진영이 결국 집권하게 된다. 이는 정치적 흥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의 현실은 이 모두 취약한 편이다.

그래도 아직 대선까지는 시간이 있다. 네거티브의 진흙탕에 빠져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각성을 촉구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